

일제 강점기 華東 金漢翼의 금강산 유람

박중훈*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金漢翼과 〈金剛遊錄〉 一覽
3. 〈金剛遊錄〉의 특징적 일면
4. 나가는 말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chparking@hanmail.net

[국문초록]

金漢翼은 일제 치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1924년 4월 20일 전라남도 장성을 출발하여 京城을 경유하고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했으며, 다시 경성을 경유해 5월 5일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왔다. 총 15일 간의 유람 기록이 그의 문집인 『華東遺稿』 권1 〈金剛遊錄〉에 실려 있다. 총 4,197자로, 분량 면에서 그리 많지 않은 기록이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어, 거칠게나마 〈금강유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金昌協의 〈東遊記〉를 유람하면서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수많은 금강산 유기 중 김창협을 취한 것은, 김창협의 작품을 후대 문인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한익은 실제 금강산과 동해의 유람 과정에서 〈동유기〉에서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압축하거나 혹은 생략했다. 이는 〈동유기〉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반복해서 부연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유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풍경에 대해서는 이전의 서술 방식과 달리 다소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는 〈동유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의식적인 서술 태도로 보인다.

다음으로, 망국의 한이 산견된다는 점이다. 일생일대의 금강산 유람으로 흥취에만 젖어 있을 수 있었지만, 변화된 경성과 불변의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하면서 망국의 한을 토로했다. 신라의 麻衣太子나 金時習을, 楚나라 義帝와 齊나라 왕 및 魯仲連, 陸秀夫를 언급하면서 망국의 한을 외들려 표현한 바 있다. 결국 김한익에게 금강산 유람은 망국의 한을 재삼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한 심사가 고스란히 기록에 담겨 있어, 여타의 금강산 유기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금강산의 표상과도 관련된다. 시대에 따라 금강산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다소 거친 호흡으로 김한익의 〈금강유록〉을 살펴보았는데, 금강산 유기의 편목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하며 김한익에 대한 접근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金漢翼, 金剛遊錄, 華東遺稿, 金昌協의 東遊記, 일제 강점기의 金剛山 遊覽, 亡國의 恨

1. 들어가는 말

금강산은 천하제일 명산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문인들이 유람했고 유람하고자 열망했던 공간이다. 그 유람을 단편적인 詩文을 통해 남겨두기도 했지만, 遊記로 엮어 놓은 것들도 적지 않다. 육재용은 금강산 관련 산수유기 총 26편,¹ 김철조는 南孝溫나 李龍, 柳雲龍 등의 21편의 작품을 소개한 바 있으며² 심경호는 東遊記나 楓嶽錄 가운데 주요한 것만을 선별해 44명의 작품을 거론한 바 있다.³ 이러한 선행 연구로 인해, 이들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금강산 유람에 대한 시공간적 의미도 선명해졌지만,⁴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작가나 작품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금강산 관련 유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새로운 금강산 유기가 발굴되고 그 전모를 소개하는 작업이 연이어졌다.⁵ 금강산 유기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연구자의 손을 기다리는 자료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金漢翼의 <金剛遊錄>을 살펴볼 것이다. <금강유

1 육재용,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先人들의 관광의식」, 『관광연구』25권,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2 김철조, 「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한문학보』1권(우리한문학회, 1999), 393-394면.

3 심경호, 「조선후기 문인의 동류 체험과 한시」, 『한국한시연구』6권(한국한시학회, 1998), 55면.

4 몇 편의 논문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혜선, 「17·8세기 金剛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7집, 관악어문연구, 1992; 이종목,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6권, 한국한시학회, 1998; 이경수, 「16세기 금강산 기행문의 작자와 저술배경」, 『국문학연구』4권, 국문학회, 2000; 박은정, 「遊山記로 보는 僧의 삶과 소수자적 실상-금강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온지논총』54권, 온지학회, 2018.

5 최근에 발굴된 금강산 유기와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종훈, 「수원박물관 소장 금강록 일고찰」, 『한국언어문화』5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池尙殷, 『金剛錄』, 박종훈 譯, 수원박물관, 2016; 박종훈, 「后山 鄭胤永의 『瀛嶽錄』一考察」, 『온지논총』67집, 온지학회, 2021; 鄭胤永, 『천하제일명산 금강산 유람기-瀛嶽錄』, 박종훈 譯, 수류화개, 2021.

록〉 역시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금강산 유기로, 금강산 유기의 편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김한익은 1924년 고향인 장성을 출발하여 京城을 경유하고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한 바 있다. 총 15일의 기록으로, 실제 기록은 그리 길지 않다.

동일 시기인 1922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광수는 〈金剛山遊記〉를 남겼고 1924년에 최남선 또한 〈楓岳記遊〉를 남긴 바 있다. 서영채는 “이광수는 자연 속에서 인간과 문명의 미덕을 잃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내적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반면 최남선은 금강산의 자연미를 숭고의 차원으로까지 고양시켰고 그 속에서 신화적 민족사라는 장대한 환상을 보았다. 이로 인해 여행의 경험과 순례의 경험 측면에서 접근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⁶

그러나 김한익의 경우에는 이광수나 최남선의 유기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일제 치하라는 동일 시기의 유람인데도, 금강산의 표상이나 위상을 달리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김한익의 생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 전대 혹은 동일 시기의 유기와 차별성을 갖는 〈금강유록〉만의 특징적 일면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금강산 유기의 편폭을 넓힘과 동시에 금강산의 또 다른 표상에 접근해 보겠다.

2. 金漢翼과 〈金剛遊錄〉 一覽

金漢翼(1863~1944)의 본관은 靈光, 자는 敬夫, 호는 華東이다. 전라남도 長城 黃龍面에서 金命鉉과 蔚山金氏 福煥의 따님 사이에서 1863년에 3월 6일에 태어났고 伯父인 金正鉉에게 출계했다. 어릴 적부터 志行이 高尚했으며, 13세에 어머니의 喪을 치루면서, 喪禮를 극진히 했다. 두 동생과도 우애가 독실하여 難得會를 만들어 매달 3차례씩 모임을 갖고 시를 지으면서 형제간의 정

6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24권,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참조.

을 다졌다.⁷

한일합병 때에 勉菴 崔益鉉이 소장을 올려 변석하면서 죽음도 피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그의 의리를 늘 추모하고 그 도리를 따르면서 스승으로 섬겼다. 淵齋 宋秉璿과 松沙 奇宇萬도 스승으로 섬겼다.

한일합병이 되자 城中의 士子들은 대부분 魂氣를 잃은 채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본의 앞잡이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한 앞잡이들은 일본의 의도에 따라 이 지역에 신식학교를 세우려고 했다. 장성의 筆巖書院이 호남의 首院이었기에, 먼저 필암서원을 취한다면 다른 서원들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암서원을 신식학교로 삼고 院田을 학교의 재정으로 삼고자 했다. 이때 김한익은 서원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동지들과 뜻을 합쳐 죽음으로써 저항하자, 일본은 그 계획을 접었다. 이로부터 김한익의 처세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때에 ‘華東’이란 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小中華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⁸

晩年에는 거처하는 북쪽에 逍遙堂을 짓고 독서에 마음을 붙였다. 세상의 변화를 아파하면서 경계의 詩文을 적지 않게 지었지만, 일부를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화동유고』 권1에 실린 〈湖南記事〉·〈學辨〉·〈政辨〉·〈治平十策〉이 남겨진 글이다. 이 글에서는 斥邪扶正의 의리를 학문의 핵심으로 삼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國史를 두루 살피고 華夷의 구분을 자세히 논하면서 늘 “저 보잘것없는 섬나라가 함부로 날뛰면서 천하에 대적하고자 하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를 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1944년 병이 들어 임종을 앞두고 그러한 심사를 다음과 같은 작품을 통해 토로한 바 있다.

7 형제들과의 難得會의 정황은 『華東遺稿』 권2에 실린 〈難得會飲序〉와 권1에 실린 〈難得會吟〉과 〈難得會歌〉라는 시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8 ‘華東’이란 호와 관련해 『華東遺稿』 권2에 실린 〈華東自序〉와 〈華東續記〉에서 用華變夷의 功에 대해 언급했고 그러한 공의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小中華 의식을 토로한 바 있다.

세한의 천지에도 오히려 송백은 있어
 늪늪한 기백은 눈보라 속에서도 그대로네.
 나라 잃은 원통함을 어디에 하소연 하랴
 지금 세상에 영웅이 없음을 탄식하노라.
 화이가 분별되기 전에 내 몸 먼저 죽노니
 저승으로 돌아가는 길에 뉘와 함께 할고.

歲寒天地猶松栢, 凜魄肯輸風雪中.
 屋社至冤何處訴 . 如今歎息世無雄.
 華夷未判身先死 , 歸路泉臺與誰同.

이 작품을 읊조리고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가셨다. 이때가 1944년 12월 7일이다. 羅州 鳳凰山 龍頭村 뒤 負乾의 언덕에 장사지냈다.⁹

김한익은 한평생 布衣로 살아왔지만,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 전쟁, 을미사변, 대한제국 성립, 을사늑약, 을사의 병, 한일합병, 3·1운동, 제2차 세계대전 등 혼란했던 근현대사를 관통했던 인물이다.

김한익의 문집인『華東遺稿』는 그의 아들 金東植이 遺文을 수집하여 조카인 金駿植의 序文(1969년)과 尹丁鏞의 跋文(1974년)을 받아 1975년에 간행했다. 2권 1책으로 권1에는 詩(115題 153首)·書(14편)·雜著(5편)·論說(5편)이 권2에는 序(10편)·記(8편)·祭文(3편)·碑銘(1편)·碑陰記(3편)·墓碣銘(1편)·行狀(2편)·家狀(2편) 그리고 附錄으로 〈難得會序〉·〈華東續記〉·〈行狀〉·〈墓碣銘〉이 실려 있다.¹⁰

9 김한익의 생애에 대해서는『화동유고』권2에 실린 尹丁鏞의 〈跋文〉과 權昌鉉의 〈行狀〉 및 金駿植의 〈墓碣銘〉의 기록을 참고했다. 생애에 대한 대략적인 기록만 담겨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10 『華東遺稿』는 石版本으로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金剛遊錄〉은 권1 雜著에 수록되어 있다. 금강산 유람과 관련된 1924년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5일의 기록이며, 글자 수는 총 4,197자이다. 김한익은 序文에 해당하는 글에서 금강산 유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금강산의 이름난 승경이 천하에 대적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하에 두루 퍼진 평가이다. 늘 한 번 유람하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했는데 이래저래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62세가 되었다. 끝내 유람을 도모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마음먹고 과감히 길을 나섰다.¹¹

천하의 명산인 금강산 유람을 늘 소망했지만, 세파에 시달려 결행하지 못하다가 62세의 노년에 이르러서야 유람을 결정하게 되었다. 금강산을 유람했던 여타 문인들의 동기와도 그리 다르지 않다. 또한 〈금강유록〉의 말미에 실린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금강산 유람에 대해 총평했는데, 다음과 같다.

금강산 유람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의 기이한 절경으로 금강산에 대적할 만한 것은 없으며 또한 금강산을 유람한 사람에게는 다른 산들은 산이 되기 어렵다고 말할 만하다. 대개 온 산이 밝고 깨끗하게 겹겹이 쌓여 있고 모든 물줄기는 휘돌아들며 빠르게 내달렸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흰 돌은 금빛 정체를 띠었고 옥빛이었으며, 맑은 시내와 재빠른 폭포는 눈이 쏟아지고 우레가 울리는 듯했다. 그 장엄하고 수려하며 뽐족하고 우뚝한 모습에는 전혀 속세의 기운이 없었고 하늘과 하나였다.

萬狀을 갖춘 봉우리와 계곡은 사계절에 따라 각각 그 변화를 다하니, 우러러보아도 그 신묘함을 알 수가 없고 굽어보아도 그 심오함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사람의 눈을 아찔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흥금이 시원스레 트이게 만들었다. 人欲이 말끔하게 사라져, 비루하고 인색

11 “金剛名勝，無敵於天下，已天下之公評爾。常切一遊之願，然在再度歲，於焉六旬有二矣，恐終不可圖，遂快意勇行。”

하며 나약하고 완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몸이 오히려 속세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였으니, 이것이 금강산을 유람한 첫 번째 義趣였다.

게다가 이 산은 동해 물가에 자리 잡고 있어 동해가 끝없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밝은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魯仲連의 氣像이 떠오르고 붉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면 陸秀夫의 節義가 생각났다. 그러니 더욱 이 세상에서 憤迫激切한 곳이다. 만약 그 멋진 풍경만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눈은 아절할 것이고 마음은 어지러울 것이지만, 이것은 말단일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¹²

문답식의 글을 통해 금강산 유람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난 구절이다. 금강산을 구경한 사람에게 보통의 산은 산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금강산의 위상에 대해 역설했고 유람을 통해 본 금강산의 절경을 거침없이 묘사해 앞서 밝힌 자신의 견해를 부연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 유람이 人欲을 사라지게 해 흥금을 탁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義趣라고 했다. 금강산 유람의 계기와 유람 과정에서 느낀 감회는 여타 금강산 유람을 했던 이들과 대동소이하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魯仲連과 陸秀夫를 가져와 망국의 한을 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다음으로 <금강유록>에 실린 유람 노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長城驛 → 京城 南門驛(4월 20일) → 光化門 → 南山 → 昌德宮(22일) → 江原道 平康驛 → 金城邑(23일) → 當平里(24일) → 淮陽 → 長安寺(25일) → 靈源洞 → 長安洞 → 業鏡臺 → 面鏡臺 → 拜石臺 → 長安寺(26일) → 百川洞 →

12 “有問金剛之遊者。余應之曰，天下奇絕，無與爲敵，而亦可謂觀於金剛者，難爲山矣。大率全山重疊皎潔，衆流縈迴奔騰，而峭峰白石，金精玉色，清溪疾瀑，雪噴雷吼。其剛壯秀麗，崢嶸磊落，頓無塵土氣，而與天爲一，萬殊峯壑，四時風景，各盡其變，而仰不知其神妙，俯不測其幽蹟，令人目眩心醉，自然胸襟脫灑，人欲清淨，鄙吝之萌，儒頑之意，無由而生，不覺此身尙留在塵世間，此遊金剛之第一義趣也，況此山鎮於東海之濱，而望之浩茫無際。見明月之出，而憶魯仲連氣像，見赤日之出，而想陸秀夫節義，則尤此世之所憤迫激切處也。若徒耽其奇形巧狀，目爲之眩，心爲之感而已，則抑亦末矣。夫復何言哉。”

表訓寺 → 正陽樓 → 表訓寺 → 萬瀑洞 → 普德菴 → 摩訶衍 → 白雲臺 → 楡岾寺(27일) → 溫井嶺 → 萬物宥店(28일) → 萬物宥 → 溫井(29일) → 新溪寺 → 九龍淵 → 玉流洞(5월 1일) → 通川 → 叢石亭 → 元山港(2일) → 淸涼驛 → 漢江鐵橋(3일) → 井邑驛 → 錦川(4일) → 蘆嶺 → 還家(5일)

4월 20일 火車를 타고 장성역을 출발하여 京城에 도착했는데, 가는 길에 四街驛(현 백양사역)에서 恒齋 金德文을 만나 동행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光化門, 南山, 弘化門, 敦化門, 昌德宮 등을 유람했는데, 이동 수단은 電車였다.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산 유람 길에 올랐다. 금강산의 초입인 강원도 平康驛까지는 火車를 이용했고 動車로 金城邑까지 이동했다. 이후 본격적인 유람은 도보로 진행되었다. 26일에 금강산의 고적에 대해 박식한 金昌河가 와서 동행했다. 5월 1일까지 총 5일 동안 내금강과 외금강 유람을 마쳤다. 이후 다시 動車로 이동하면서 叢石을 지나 元山港까지 이동했다. 元山에서 火車를 타고 淸涼驛에 도착했고 다시 電車로 경성을 유람한 뒤, 火車로 井邑까지 이동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실제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한 것은 총 7일이다.¹³

3. 〈金剛遊錄〉의 특징적 일면

3.1. 金昌協 〈東遊記〉를 기반으로 한 서술

己酉日, 일찍 출발하여 百川洞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萬瀑洞과 靈源洞의 물이 흘러 내려와 합쳐지는 곳이다. 2~3리를 가자 鳴淵이 있었다. 명연은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빠른 여울이 돌뿌리를 울리고 있었으며, 물은 대

13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김한익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면서 金昌協의 〈東遊記〉를 가지고 갔었다. 김창협은 경우에는 총 15일 동안 내외금강과 동해를 유람한 것에 비한다면, 절반 정도의 기간인데, 실제 유람했던 곳도 김창협에 비해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단히 淸涼했다. 또한 2~3리를 가자 白華菴이 있었다. 백화암 뒤에 頓道峰이 있고 돈도봉 아래에 작은 암자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길 麻衣太子的 母后가 비구니가 되어 거처했던 곳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다고 한다.

表訓寺에 이르니 그 장대하고 화려한 것이 장안사와 비슷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2~3리를 가 正陽樓에 올랐다. 정양루는 歇惺樓와 건축 양식이 같았지만 현판이 달랐다. 정양루의 오른쪽에 天一臺가 있는데 나무가 대단히 무성했다.¹⁴

4월 27일 백천동과 명연 그리고 백화암, 돈도봉, 표훈사, 정양루, 천일대를 유람한 기록이다. 정오가 되기도 전에 백화암에서 천일대까지 이동하면서, 각 풍경에 대한 묘사나 감흥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고 여정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경향은 금강산 유람의 전체 과정에서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김한익이 여정과 풍경을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甲子年(1924) 여름 4월 20일 壬寅, 아침 일찍 長城驛에서 출발했다. 아직 금강산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은 마치 세상을 벗어난 듯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가지고 간 것은 오직 農巖 金昌協 선생의 <東遊記> 한 편과 한 병의 술뿐이었다. 기차를 타고 四街驛(현 백양사역)에 이르자, 牟陽에 거주하는 恒齋 金德文 형이 또한 기차를 탔으니, 이전에 함께 유람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다.¹⁵

금강산 유람을 위해 1924년 4월 20일 기차로 장성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하는 과정을 쓴 기록이다. 金昌協의 <東遊記> 한 편을 가지고 갔다는 언급에

14 己酉(4월 27일) “早發, 至百川洞, 是萬瀑靈源下流合會處也. 行數里, 有鳴淵. 潭沈沈黛黑, 迅湍吼石耳, 根甚淸涼. 又行數里, 有白華菴. 菴後有頓道峰, 峰下有小菴, 諺傳麻衣太子母后爲尼所居, 而今空虛云. 至表訓寺, 其壯麗與長安寺相埒. 小憩更進數里, 上正陽樓. 樓與歇惺樓同制異額. 樓右有天一臺, 樹林甚蔚密.”

15 “甲子夏二十日壬寅, 早發長城驛, 未到金剛, 而此心飄然如遺世矣. 所齋唯農巖先生東遊一記與一壺酒而已. 登汽車, 至四街驛, 牟陽居金友恒齋德文兄亦乘, 以有前期也.”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창협이 〈동유기〉는 조선 후기 금강산 유람의 한 모델이 되었고 또한 길라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¹⁶ 김한익 역시 김창협의 〈동유기〉를 가지고 간 연유 또한 이와 같으리라 판단된다.¹⁷

김한익은 실제 유람 과정에 대한 기록에서 〈동유기〉의 기록을 적극 활용했다.

① 金昌協, 〈東遊記〉

普德窟, 石磴縈紆數百步, 磴盡復有階. 階凡四十級, 級窮始得窟. 中構小菴, 若懸磬. 前楹出巖外, 亡所附麗, 卽以數十尺銅柱承之, 復用兩鐵鎖經緯之. 乍登其上, 身搖搖如在半空, 眩慄不敢俯視.

金漢翼, 〈金剛遊錄〉

噴雪之右有普德菴, 巖上絕壁, 用鐵爲柱, 如懸磬, 在半空, 不必登臨.

② 金昌協, 〈東遊記〉

蓋是洞, 全以大盤石爲底, 石皆白色如玉, 而溪水自毗盧峰以下, 衆壑交流, 奔

16 金昌協(1651~1708)은 1671년 8월 금강산을 유람하고 〈東遊記〉(『農巖集』권23)와 「東征賦」(『農巖集』 권1)를 지은 바 있다. 윤재환은 「梅山과 玉洞의 금강산 기행시문 비교 연구」(『동양학』 38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에서, “조선 전기의 유기는 道學的 측면에서 仙境을 추구하면서 道理를 체득하려는 의지가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어, 성리학적 사유가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이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었는데, 그 시발점에 金昌協과 金昌翁이 있다. 이들은 眞境과 眞事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강산에 대한 인식과 유기의 경향을 바뀌었다. 이후 이들의 문인인 李夏鑑의 「金剛途路記」나 李澈의 「東遊錄」 등도 그 경향을 그대로 잇고 있다.”라고 김창협의 〈동유기〉를 평가한 바 있다.

17 참고로 조선 후기 鄭胤永(1833~1898)은 1897년 가을, 내외금강 및 삼일포 등 동해를 유람하고 이때의 기록을 『瀛嶽錄』으로 엮은 바 있다. 이 『영악록』에서도 김창협의 〈동유기〉는 끊임없이 소환되고 실제 〈동유기〉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옮겨왔다. 이로 보면 조선 후기 김창협의 〈동유기〉가 산수유기, 그 중에서도 금강산 유람과 관련해 하나의 전범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판단해 본다. 정운영의 『영악록』과 김창협의 〈동유기〉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박종훈의 「后山 鄭胤永의 『瀛嶽錄』 一考察」(『은지논총』 67집, 은지학회, 2021.) 참조.

趨爭先，咸會于是洞。石之嶽崎磊落，槎牙齷齪者，又離列錯置，以與水相爭，水遇石必奔騰擊薄，以盡其變。然後始拗怒徐行，爲平川爲淺瀨，間遇懸崖絕壁，又落而爲瀑，瀑下又匯而爲潭。瀑長自六七丈，至一二丈。潭廣自七八畝，至三數畝。其名爲龜爲船爲青龍黑龍爲凝碧爲眞珠爲青琉璃黃琉璃，而碧霞最奇麗，火龍最雄大，此其大略也。

金漢翼, 〈金剛遊錄〉

一溪水自毗盧峯，集衆壑之交流，疾奔直下，咸會于此。蓋是洞全以巨石盤根着地，而磅礴磊砢，或穹隆而出，或平準而沒，故激于石，則揚而爲瀑，匯于石，則沒而爲潭。潭有深淺，瀑有長短，相連相接，如是者八，而石白如玉，波吼成雷，最是奇雄，而一瀑尤勝也。潭各有名，曰黑龍，曰琵琶，曰碧波，曰噴雪，曰眞珠，曰龜，曰船，曰火龍，凡八潭。

③ 金昌協, 〈東遊記〉

帖爲內外山分界處，內山多石而少土，外山多土而少石。多石故白而峭，多土故蒼而雄，此內外山之別也。

金漢翼, 〈金剛遊錄〉

蓋金剛有內外之分界，內山多石小土，外山多土小石，而惟萬物視內山益多石矣。

김창협과 김한익의 작품 중에서, 동일한 풍경에서의 기록을 대략 비교해 본 것이다. ①은 보덕암에서 기록인데, ‘懸磬’이나 ‘在半空’ 등의 표현은 〈동유기〉와 동일하며, ‘用鐵爲柱’ 역시 ‘復用兩鐵鎖經緯之’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김창협의 〈동유기〉의 기록을 간략하게 압축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②는 우선 ‘洞’과 ‘溪’를 언급한 순서가 바뀌었지만, 동일한 표현이다. 또한 ‘瀑長自六七丈，至一二丈。潭廣自七八畝，至三數畝.’를 ‘潭有深淺，瀑有長短’로 간략하게 압축했다. 비록 표현 방식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창협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③ 역시 동일한 표현을 김한익이 조금 압축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한익의 작품에는 김창협이 작품에 보이는 유사한 구절들이 적지 않다.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昌協,〈東遊記〉	金漢翼,〈金剛遊錄〉
縈回曲折	縈回曲折
渟泓深綠	渟泓水色浮黃
中有巨石盤 _ㄱ ,可坐數百人.	一處有巨巖,盤 _ㄱ 可坐百餘人.
溪水出洞口,便與萬瀑下流合.	溪水濺濺出洞,便與萬瀑下流相合.
寺據平地,四圍回合,無所覩見.	寺據平地,無所覩見.
白雲淨盡,世所稱萬二千峰者,一一呈露如掌中.	是日雲霧淨盡,眺望無漏.自毘盧至白馬峰,萬千群峰,矗矗尖尖,一一呈露,而全區眞面,盡在目中.所謂天下名勝之無敵者,觀於此足矣.
鬱淵,亦名鳴韻潭,沈沈黛黑,不可狎玩,迅湍下墜,雷吼雪噴,尤可壯也.	有鳴淵.潭沈沈黛黑,迅湍吼石耳.
至表訓寺,其壯麗與長安寺相埒.	至表訓寺,其壯麗與長安寺相埒.
縱橫顛倒而散布者,亦無不然.	其或顛倒布散者,不可勝計…叢石縱橫邊海岸.
造物之巧,何以至此.	非造物者設,何以有此.

김창협과 김한익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 압축한 경우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부연 설명한 것도 보이지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김창협의 〈동유기〉는 대략 6,300여 자로 모두 금강산과 동해 유람의 기록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김한익의 〈금강유록〉은 4,197자이지만, 실제 금강산 및 동해 유람과 관련된 부분은 3,200여 자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김한익은 동행했던 恒齋 金德文과의 일화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했으며, 감회를 읊조린 한시 작품 역시 17수나 기록되어 있어, 실제 유람 과정의 기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한 김창협의 경우 15일 동안 유람한 기록이지만, 김한익은 7일간의 유람 기록으로 그 기간에 있어서도 배나 차이가 난다.

김한익의 작품에는 유람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김창협의 〈동유기〉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기에, 거듭 부연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辛亥, 새벽밥을 먹고 萬物肖로 들어갔다. 길을 조금 가니 쇠로 만든 동아

줄이 걸려 있었는데, 이것을 부여잡고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보이는 봉우리들은 모두 암석이었고 뾰족하게 솟은 기이한 모습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았다. 어떤 것은 얼음과 옥을 쌓아 놓은 듯했고 어떤 것은 구름과 이내가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어떤 것은 새가 날고 짐승이 뛰는 것만 같았다. 사람과 귀신 그리고 신선과 부처가 잡다하게 섞여 있어 분간하기 어려웠고 성곽과 성가퀴가 겹겹이 험하게 설치된 것 같았으며, 깃발과 창이 뾰족하게 줄지어 서 있는 듯 했다. 멀리서 바라보니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으며,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했지만 각각 사물을 본뜬 것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래서 만물초라고 한 것이다.

대개 이곳은 내금강과 외금강이 나누어지는 경계로, 내금강은 돌이 많고 흙이 적으며 외금강은 흙이 많고 돌이 적다고 한다. 다만 만물초에서 내금강을 바라보았는데도 더욱 돌이 많았다. 또한 다른 곳에 新萬物肖가 있는데, 더욱 기이하다고 한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 마침내 벼랑을 부여잡고 오르며 바짝 붙은 채, 한걸음 가서 쉬고 한 걸음씩 건너가면서 천천히 수백丈을 내려갔다. 그리고 깎아지른 계곡을 건너 다시 위쪽으로 나아갔다. 가는 길에는 모두 암석이 흩어져 있었기에 오직 옛사람의 발자취만을 따라갔다. 잠시 후에 길이 험갈려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고 올려다볼수록 더욱 험준했다. 그래서 문득 垂堂의 경계가 생각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 이에 칠언절구 한 수를 읊조렸는데, 다음과 같다.

봉우리와 암석마다 모두 기이하어

그림 같기도 참모습 같기도 해 보면 신기하네.

하늘이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오묘하게 했노니

빛어낸 모습은 오직 조화옹만이 알리라.¹⁸

18 辛亥(4월 29일) “葍食, 入萬物肖. 行小許, 用鐵橫索, 乃攀登臨, 峯峯皆石, 其巖尖奇怪之狀, 奪人目睛, 或如冰玉之積, 或如雲霞之起, 或如鳥獸之躍, 抑人神仙佛, 雜糅難辨耶, 抑城郭雄堞, 重重設險, 而旗幟槍戟, 簇簇列立耶. 望之隱映, 察之依迷, 各有物之肖像, 故謂之萬物肖也. 蓋金剛有內外之分界, 內山多石小土, 外山多土小石, 而惟萬物視內山益多石矣. 且有新區萬物, 而尤奇絕云, 故不禁貪饕, 遂攀崖附壁, 而一坐一跨, 徐下數百丈, 而度絕壑, 復向上前進, 路皆散石, 只憑人舊蹤. 頃之迷失難進, 而仰之益峻, 故忽念垂堂之戒而罷歸, 吟一絕曰, 峯峯石石摠奇奇, 如畫如真視亦疑. 天設之初茲妙用, 色空惟有化翁知.”

4월 29일 萬物肖를 유람하고 그 감흥을 묘사한 대목이다. <금강유록>에 실린 다른 풍경에 비해 다소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조금은 상이한 서술 태도를 취한 것은 왜일까. 김창협 역시 유람하는 길에 만물초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지만, 만물초와 관련된 아무런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김한익은 김창협의 기록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김창협의 <동유기>에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김창협의 기록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한 것이 아닐까 한다. <동유기>의 부족한 부분은 채운 것이다. 5월 1일에 新溪寺와 連珠潭, 飛龍瀑布, 舞鳳瀑布, 玉流洞, 九龍淵, 八潭 등을 유람하면서도 자못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졌다.¹⁹ 이 부분 역시 김창협의 <동유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지점이다. 결국 <동유기>에서 언급한 풍경에 대해서는 김창협의 서술을 의식한 상태에서 반복 언급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압축해서 서술했으며, <동유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못 상세하게 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김창협의 <동유기>를 의식한 상태에서의 서술 태도라 하겠다.

3.2. 유람을 통한 亡國의 恨 吐露

앞서 살핀 것처럼, <금강유록>은 <동유기>를 의식한 상태에서 동일한 풍경에 대한 묘사를 간략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유람 과정에서의 설렘이나 감회에 대해서는 한시를 통해 드러냈는데, <금강유록>에는 오언절구 4수, 칠언절구 9

19 “五月初吉壬子, 早到新溪寺, 向九龍淵, 溯其源, 抵新溪三十里強. 行十數里, 有一旅館, 又有金剛門, 巨巖成窟, 窟之廣高, 剩容人出入. 傍有城門巖, 高峰上巖石削立, 方正如築城. 行數里, 有連珠潭飛龍舞鳳兩瀑, 漸入益奇. 峯巒之峻絕, 與靈源洞略同, 而危險過之. 又行數里, 忽見飛瀑, 踰嶺橫下數百丈, 波不甚大, 如急雨落轉, 謂之玉流洞也. 因留坐食, 謂瀑之奇觀止於此. 更顧有一線路, 穿峽而出, 以爲且有奇觀處, 漸向入深, 往往攀鐵索, 屢涉絕崖, 而遙看一小館, 在望裏. 下峽, 疑其位山神堂, 路漸向下, 抵館, 是酒食所業也. 忽見九龍淵, 絕勝盡在於此. 峯上有八潭, 潭盈踰嶺, 直下三百尺, 落處復成潭, 潭深四十餘尺. 凡九潭波之大者, 如數十幅布, 連續長掛, 小者, 頗如明珠, 鱗鱗相落, 看看益奇矣.”

수, 칠언율시 4수 총 17수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칠언절구 1수는 宋時烈이 朱熹의 작품을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기에, 김한익의 작품은 총 16수이다. 시작품 역시 종래의 금강산 유기에 실린 한시처럼 유람 과정에서 겪은 감회와 각 풍경에서의 묘사가 주를 이룬다.

김한익이 금강산을 유람했던 시기는 1924년으로, 일제 치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유람기에 반영되어 망국의 한도 곳곳에 토로 되어 있다. 단순히 유람의 흥취에 젖지 않고 장대한 모습을 대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첨예화한 것이다.

길을 가다가 大漢門에 이르렀다. 대한문은 단혀 있었고 멀리 德壽宮이 바라다보였는데 光武皇帝 高宗의 옛 궁궐이다. 마침내 남산에 올라 멀리 바라다보았다. 풍경은 다름이 없는데, 산하가 절로 달라졌으니 태평 시절 북쪽을 바라봤던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감흥이 일어 四韻의 시를 읊조렸는데, 다음과 같다.

늘그막이 되어 비로소 京城에 들어왔는데
人心과 物色은 모두 이전과 달라졌구나.
聖朝는 뜬구름 밖에서 오래도록 恨 할 테고
시인은 저무는 해 주변에서 근심 이네.
三角山에는 蜀魂의 피가 어리어있고
육조 거리는 불쌍한 楚囚로 어지럽네.
남산 올라 북쪽 보매 회포가 많노니
고국의 의관은 구천에서 통곡하리라.²⁰

4월 22일 大漢門과 南山에서의 감회를 기록한 부분이다. 대한문에 이르렀

20 ‘甲辰(4월 22일) “行至大漢門門鎖, 望德壽宮, 是光武皇帝舊宮也. 遂登嶽望遠, 風景不殊, 而山河自異, 不禁乘平望北之歎. 有感而吟四韻曰, 始入京城老大年, 人心物色摠非先. 聖朝舊恨浮雲外, 騷客新愁暮日邊. 三角山共蜀魂血, 六曹街亂楚囚憐. 南登北眺多懷感, 古國衣冠哭九天.”

지만 문이 닫혀 있어 그냥 지나쳤고 이어 남산에 올라 경성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新亭’의 고사를 떠올렸다.²¹ “風景不殊，而山河自異。”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정’의 고사로 망국의 한을 드러낸 구절이다. 경성의 화려한 풍경을 대하면서도 풍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라 잃은 슬픔을 자각한 셈이다.

이어지는 시 작품에서도 망국의 한을 오롯이 드러냈다. 62세의 노년에 경성에 왔는데, 人心과 物色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 역시 당대 현실에 대한 침예한 인식이다. 5구에서는 三角山에 蜀魂의 피가 어렸다고 했는데, 蜀魂은 두견새 별칭이다. 옛날 蜀나라에 이름이 杜宇로 望帝라고 불린 임금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쫓겨나와 죽어서 두견이가 된 뒤 봄철에 밤낮으로 슬피 운다는 전설이 있다.²² 여기에서는 일본에 나라를 잃은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또한 6구에서는 종로 거리의 사람들을 ‘楚囚’라고 언급했다. 楚囚는 쑤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문고로 楚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던 鍾儀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나라가 위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는 군박한 처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²³ ‘신정’의 고사에서 언급한 ‘楚囚’와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종로에 오가는 사람들이 마치 ‘초수’처럼 옛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망국의 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구천에 있는 옛 벼슬아치들도 통곡하리라 마무리하면서 망국의 한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오후에 電車를 타고 弘化門에 내려 동물원과 박물관 및 식물원을 구경했는데, 모두 예전에는 궁전이었던 곳이다. 宗廟 앞을 지나 敦化門에 이르렀는데, 돈화문은 잠겨 있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고 昌德宮 앞은 일본 관리가 지키고 있었다. 이곳은 隆熙皇帝 純宗이 禁錮되었던 궁이다. 온 나라의 臣民들이 일찍이 왜적에게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한 채, 한 조각 종이로 오백 년의 宗祀를 원수의 나라에 주었으니, 그 비통하고 원통함이 楚나라 義

21 『世說新語·言語』에서 “過江諸人，每至暇日，輒相邀出新亭，藉卉飲宴。周侯中坐而歎曰，風景不殊，正自有江河之異。皆相視流淚。唯王丞相愀然變色曰，當共勦力王室，克復神州，何至作楚囚相對。”라고 했다.

22 『蜀王本紀』에 보인다.

23 『春秋左氏傳』成公9年條에 보인다.

帝가 강 속에서 죽었고 齊나라 왕이 松栢에서 나그네가 된 것보다 심함이 있다. 괴롭고도 서글퍼서 차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²⁴

4월 22일 경성을 유람한 기록 중 일부이다. 일제가 1909년 昌慶宮 明政殿 일원에 식물원과 동물원 및 박물관을 설치했는데, 한 나라의 궁궐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일제의 만행에 대한 개탄이 묻어난다. 일제의 침략과 그로 인한 을사늑약 및 한일합병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한 조각 종이로 나라를 빼앗긴 비통함을 쏟아내면서 純宗의 처지를 楚나라 義帝와²⁵ 齊나라 왕²⁶에 견주면서 그 원통함을 극대화시켰다.

아직 본격적인 금강산 유람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경성이라는 공간에서 망국의 한이 깃든 곳을 돌아보며 시대의 아픔을 자각했는데, 이러한 한은 실제 금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도 지속 되었다.

조금 더 가니 돌로 만든 궁궐터에 繫馬石이 있었다. 대개 新羅王子가 세상을 피해 의리를 지킨 곳이다. 계곡 주변의 石面에 ‘東京義烈北地英風’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또한 望軍臺가 있었는데 너무도 우뚝 솟아 있어 올라갈 수 없었다. 계곡 주변에 작고 평평한 돌이 있어 이곳에 머물러 앉아 술을 마셨다. 이에 함께 간 사람들이 감개가 일었고 칠언절구 한 수를 읊조렸는데, 다음과 같다.

麻衣太子가 이곳으로 들어와
北地英風이 백세토록 맑아졌다네.

24 ‘甲辰(4월 22일) “午後乘電車, 下弘化門, 翫動物博物植物園, 蓋舊時宮殿也. 行過宗廟門, 至敦化門, 門禁甚不能入 昌德宮前, 但見日使之守直而已, 是隆熙皇帝禁錮之宮. 舉國臣民, 未會加一矢於賊, 以一片白紙, 五百年宗祀, 附與讐國, 其悲痛憤迫, 甚於楚帝死於江中, 齊王客於松栢. 苦苦哀哀, 不忍見不忍聞.”

25 義帝는 項羽에 의해서 방편으로 세워진 楚나라 懷王인 孫心이다. 항우의 密令을 받은 英布에 의해 江 속에서 擊殺되었다. 『史記·項羽本紀』에 보인다.

26 『通鑑節要』에 “秦使人誘齊王, 約封以五百里之地, 齊王遂降. 秦遷之共, 處之松栢之間, 餓而死.”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후 왕손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義烈로 風聲을 세웠다는 것 못 들었네.²⁷

4월 26일 금강산의 明鏡臺를 유람하면서 麻衣太子를 상기한 대목이다. 마의태자는 新羅 敬順王의 太子인 金鑑이다. 태자인 그는 父王이 高麗에 항복한 것을 보고 왕에게 諫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통곡하며 절을 올리고 부왕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바위에 의지해 집을 만들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면서 삶을 마쳤다. ‘東京義烈’의 ‘東京’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말하고 ‘北地英風’은 후세인들이 깊은 산 속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삼베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태자의 꾀꿍함을 표현한 구절이다.

종래 금강산 유기에서도 마의태자의 행적이 담긴 이곳에서 적지 않은 기록을 남겼는데, 마의태자의 의열을 칭송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김한익은 마의태자의 의열을 칭송하면서도 당대 현실을 되새기며 작품을 마무리했다. 결국 나라 잃은 서러움과 그러한 상황인데도 의열을 일으키지 못한 상황에 대해 탄식한 것이다. 이렇듯 유람 중의 풍경에서도 망국의 한을 드러낸 곳은 산견된다.

이날 구름과 안개가 깨끗하게 걷혀 빠짐없이 멀리서 바라다볼 수 있었다. 昆盧峰에서부터 白馬峰에 이르기까지 겹겹의 뾰족한 수많은 봉우리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어 전 지역의 참모습이 모두 눈에 들어왔다. 이른바 천하에서 대적할 수 없는 명승이라는 것을 이곳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에 항재는 모든 산봉우리를 그림으로 그렸고 김창하는 산봉우리를 손으로 하나하나 가리켰으며, 나는 난간에 기대어 이곳저곳 돌아보았다. 한편으로는 興感이 일었고 한편으로는 격동함이 일었다.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산하는 남아 있어 천하가 모두 조선의 금강산을 칭송하니, 이 봉우리의 우

27 戊申(4월 26일) “行小許，有石城宮闕墟繫馬石，蓋新羅王子避世守義之地，而溪邊石面，刻東京義烈北地英風，又有望軍臺，巍巍莫可登。溪邊有小盤石，因留坐酒。一行感而吟一絕曰，麻衣太子入茲城，北地英風百世清。伊後王孫亡國日，未聞義烈樹風聲。”

뚝 솟은 돌기둥이 또한 東海의 砥柱가 아니겠는가.²⁸

4월 27일, 正陽樓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고 그 감회를 기록한 부분이다. 정양루에서 보이는 금강산의 전경은 그야말로 천하에서 대적할 수 없는 절경이라고 칭송했다. 이어 그러한 절경에서 유람의 흥취를 발산하기도 했지만, 이렇듯 멋진 승경을 가진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함도 토로했다. “以爲國雖破, 山河猶在.”라는 언급은 唐나라 杜甫 <春望>의 “나라는 파괴되어 산하만 남아 있고, 장안엔 봄이 오니 초목만 깊어졌네.[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라고 구절을 의식한 상태에서의 언급으로 보인다. 두보 역시 <춘망>에 망국의 한을 담아내었는데, 김한익 역시 절경의 강토를 강탈당한 망국의 한을 두보의 작품을 활용해 드러낸 것이다.

龍潭의 왼쪽 길 주변의 돌에는 梅月堂 金時習의 “산을 좋아하고 시냇물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나는 산에 올라가 통곡하고 시냇물을 마주하고 통곡하면서 어찌 산을 좋아하고 시냇물을 좋아하는 흥취는 없고 다만 이렇게 한없이 통곡하는 것일까. 슬프도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근심 속에 일어나 삼가 읽기를 마친 후에 탄식하며 “매월당의 시절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道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다만 임금을 위해 이렇게 통곡했다. 나는 나라가 망하고 도를 상실한 때를 만났으니 더욱 도를 위해 통곡하고 나라를 위해 통곡해야만 한다. 끝이 없구나, 서글픔이여.”라고 했다. 또한 칠언절구 한 수를 읊조렸는데, 다음과 같다.

한 줄기 폭포로 팔담이 전해지는데
만 곡의 밝은 명주가 앞뒤로 쌓여 있네.

28 己酉(4월 27일) “是日雲霧淨盡, 眺望無漏. 自崑虛至白馬峰, 萬千群峰, 轟轟尖尖, 一一呈露, 而全區眞面, 盡在目中. 所謂天下名勝之無敵者, 觀於此足矣. 於是恒齋圖畫全嶽, 昌河指點散峰, 我則憑檻顧瞻, 一邊興發, 一邊激奮, 以爲國雖破, 山河猶在, 而天下皆謂之朝鮮金剛, 此岡之屹立石骨, 亦可爲東海之砥柱也.”

이 기이하고 웅장함 보니 의기가 더하노니
 매옹의 통곡에 끝없이 감응하노라.²⁹

4월 27일, 금강산을 유람하던 도중 金時習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감회를 기록한 대목이다. 종래의 유람객들 역시 이곳에 와서 김시습의 언급을 회억하면서 적지 않은 기록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김시습처럼 산수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전유하지 못한 속인의 한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김한익은 기존의 기록과는 다른 관점에서 김시습의 행적에 접근했다. 우선 김시습의 이러한 언급이 임금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산수 자연의 흥취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김한익의 심사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어지는 “나라가 망하고 도를 상실한 때를 만났으니 더욱 도를 위해 통곡하고 나라를 위해 통곡해야만 한다.”라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도를 상실한 시대를 만난 김한익이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김시습의 작품을 자기화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 부분 역시 망국의 한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유람의 흥취에서 시작하여, 그러한 장관의 영토를 빼앗긴 현실을 상기하며 비통해한 것이다.

늦은 밤에 돌아와 光化門 밖 문 앞에 이르렀는데, 物色은 이미 대한제국의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故國의 歌曲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듣고 있자니 너무도 서글퍼 감회가 일었다.³⁰

5월 3일,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경성에 도착해, 밤에 경성 거리를 거니는 감

29 己酉(4월 27일) “龍潭之左路邊石面, 刻梅月堂文樂山樂水, 人之常情, 我之登山而哭, 臨水而哭, 豈無樂山樂水之興, 而有此哭無窮哉. 悲夫. 余惕然起, 敬讀之訖, 歎曰, 梅翁之時, 國不亡, 道不喪, 只是爲君而哭, 我則當此國破道喪, 尤可爲道而哭, 爲國而哭, 無窮哉, 慟矣夫. 又吟一絕曰, 一源瀑布入潭傳, 萬斛明珠積後前. 觀此奇雄增意氣, 梅翁痛哭感無邊.”

30 甲寅(5월 3일) “夜久還至光化門外闔境, 物色已非韓有, 而猶有唱故國歌曲者, 聞甚悽然有感矣.”

회를 기록한 대목이다. ‘物色’이 대한제국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마도 변복령이나 단발령 혹은 변화된 육조거리에 대한 탄식으로 보인다. 세상의 풍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故國의 歌曲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고국의 가곡’이 어떤 유의 음악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대목 역시 망국의 한이 서려 있다.

앞서 살핀 <금강유록>의 말미에 실린 글에서 흥금을 트이게 한 것이 첫 번째 義趣라고 했고 이어 “밝은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魯仲連의 氣像이 떠오르고 붉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면 陸秀夫의 節義가 생각났다. 그러니 더욱이 세상에서 憤迫激切한 곳이다. 만약 그 멋진 풍경만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눈은 아찔할 것이고 마음은 어지러울 것이지만, 이것은 말단일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앞서 살핀 것처럼, 유람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망국의 한에 대입시켜 보면 그 의미가 명료해진다. 노중련은 패망할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절의를 드러냈고³¹ 육수부는 망한 나라의 재건을 위해 목숨 바친 인물이다.³² 김한익은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단순히 풍경만을 즐기지 않고 이들의 의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비분강개함을 금치 못한 것이다. 망국의 한과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열망이 유람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다고 스스로 언급한 대목이라 하겠다.

31 魯仲連은 戰國 시대 齊나라의 高士이다. 그가 趙나라에 가 있을 때 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서울인 邯鄲을 포위했는데, 이때 魏나라가 장군 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僭稱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라고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한다. 『史記·魯仲連列傳』에 보인다.

32 陸秀夫는 宋나라 말엽의 忠臣이다. 송나라가 元나라에 의해 패망하자, 福州에서 益王을 세웠고 익왕이 죽자 다시 衛王을 세웠다. 원나라 군사가 송의 최후 堡壘이던 厓山을 격파하자,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는 칼을 들고 처자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한 다음 곧 위왕을 등에 업고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 또한 적군에게 쫓겨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도 『大學』을 써서 講學하기를 권장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講經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자, 이 도가 없으면 나라를 찾은들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고 강을 끝낸 다음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宋史·陸秀夫列傳』에 보인다.

김한익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면서 경성을 경유했고 유람을 마치고서도 경성을 경유하여 고향 장성으로 돌아왔다. 경성은 일제의 강탈로 변화된 곳이다. 그 변화된 곳에서 변하지 않았어야 함을 되새기면서 망국의 한을 토로했다. 반면, 실제 금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는 변화된 세상과 달리 변하지 않은 곳을 직면하면서, 불변의 가치를 옹호하며 망국의 한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되새겼다. 일생일대의 큰 걸음인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단순히 흥취에만 빠져들지 않고, 變과 不變의 사이에서 당대 현실을 자각하고 망국의 한을 효과적으로 발산했으니, 종래의 금강산 유기와는 차별성을 갖는 작품이라 하겠다. 김한익은 불행하게도 1945년 광복을 앞둔, 1944년에 별세하여 생전에 망국의 한을 씻지 못했다.

4. 나가는 말

김한익은 1924년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5일 동안 경성을 경유 하여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한 바 있고 이때의 기록을 <금강유록>에 담았다. 김한익은 혼란스러웠던 근현대를 관통했던 인물로, 소중화 의식을 한평생 고수한 유자였다. 1924년 일제 치하라는 상황 속에서 금강산을 유람하게 되었는데, 이 <금강유록>은 금강산 유람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녹아 있어 주목된다.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기에, 거칠게나마 살펴보면서 금강산 유기 편목을 넓히고자 했다.

김한익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하면서 김창협 의 <동유기>를 가지고 갔었다. 수많은 조선 문인의 금강산 유람기 중에 김창협의 작품을 가지고 간 것은 나름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창협의 <동유기>가 유람기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는 평가와도 맞물린 것이 아닐까 한다. 실제 김한익은 <동유기>에서 언급한 풍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압축 서술하거나 아예 생략했다. 이는 <동유기>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 부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동유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만물초 등에 대해서는 이전의 서술 방식과 달리 다소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는 <동유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한익은 경성을 경유해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하면서 망국의 한을 토로했다. 일면 유람이라는 흥취에 젖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강탈되어 대한제국의 변모를 잃어버린 변화된 경성을 통해서 망국의 한을 토로했다. 실제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하는 과정에서는 변하지 않은 산천의 모습과 장대한 승경을 통해 망국의 한을 드러냈다. 김한익에게는 變과 不變의 사이에서 망국의 한을 새삼 자각하는 유람이었다. 이로 인해 금강산의 절경은 망국의 한을 토로하는 장이 되었다. 이 부분이 <금강유록>의 특징적 일면이라 하겠다.

김한익의 <금강유록>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거칠게나마 그 전모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이 금강산 유기의 편폭을 넓히고 더불어 시대에 따라 변화된 금강산의 표상을 확인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계기로 종래의 금강산 관련 유기를 한 자리에 모아, 시대에 따른 금강산의 위상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A study on the excursion to Mt. Geumgang by Kim Han-i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Chonghoon(Chosun University)

Kim Han-ik(金漢翼) departed from Jangseong(長城), Jeollanam-do(全羅南道) on April 20, 1924, passed through Gyeongseong(京城), and toured Mt. Geumgang(金剛山) and the East Sea(東海) from April 23 to May 2,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of Jangseong on May 5, via Gyeongseong. The record of his 15-day excursions is included in 「Records of excursions to Mt. Geumgang(金剛遊錄)」 in the first volume of his 『Hwadong Yugo(華東遺稿)』. The 「Records of excursions to Mt. Geumgang」 has a total of 4,197 characters, which is not much in terms of length, but has not yet been reported to academia. So I took a rough look at its features.

The first thing to be noticed is Kim Han-ik's mention of taking Kim Chang-hyeop'(金昌協)s 「Dongyugi(東遊記)」. The fact that Kim Chang-hyeop's work was taken out of the numerous records of Mt. Geumgang can give an answer to how later writers perceived Kim's work. However, it is a pity that there is no detailed explanation. During his excursion to Mt. Geumgang and the East Sea, he briefly compressed or omitted the parts introduced in 「Dongyugi」. This is probably because he felt there was no need to repeat the part mentioned in 「Dongyugi」. However, he did describe in some detail what was not mentioned in 「Dongyugi」. This is a conscious effort to fill in the shortcomings of 「Dongyugi」.

The next characteristic thing is that the sorrow of losing the country is seen everywhere. He could only be immersed in the excitement of the Mt. Geumgang

excursion, but he expressed the sorrow of losing his country while excursions around the changed Gyeongseong and the unchanged Mt. Geumgang and the East Sea. In the end, for Kim Han-ik, the tour of Mt. Geumgang was an opportunity to repeatedly confirm the sorrow of losing the country, and such examinations are recorded in the record,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other travels to Mt. Geumgang. This is also related to the representation of Mt. Geumgang, and it seems necessary to approach how the status of Mt. Geumgang is changing according to the times.

Key words: Kim Han-ik(金漢翼), 「Records of excursions to Mt. Geumgang(金剛遊錄)」, 『Hwadong Yugo(華東遺稿)』, 「Dong Yugi」 by Kim Chang-hyeop(金昌協의 〈東遊記〉), Mt. Geumgang tou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rrow of losing the country(亡國의 恨)

[참고문헌]

■ 기본자료

金昌協, 『農巖集』

金漢翼, 『華東遺稿』,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池尙殷, 『金剛錄』, 박중훈 譯, 수원박물관, 2016.

鄭胤永, 『천하제일명산 금강산 유람기-瀛嶽錄』, 박중훈 譯, 수류화개, 2021.

■ 논문

강혜선, 「17·8세기 金剛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집, 관악어문연구, 1992, 91-111면.

김철조, 「한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한문학보』 1권, 우리한문학회, 1999, 361-411면.

박은정, 「遊山記로 보는 僧의 삶과 소수자적 실상-금강산 유람기를 중심으로-」, 『은지논총』 54권, 은지학회, 2018, 105-131면.

박중훈, 「수원박물관 소장 금강록 일고찰」, 『한국언어문화』 5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109-134면.

박중훈, 「后山 鄭胤永의 『瀛嶽錄』 一考察」, 『은지논총』 67집, 은지학회, 2021, 109-144면.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24권,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242-280면.

심경호, 「조선후기 문인의 동류 체험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6권, 한국한시학회, 1998, 53-88면.

육재용, 「산수유람록에 나타난 先人들의 관광의식」, 『관광연구』 25권,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1-20면.

윤재환, 「梅山과 玉洞의 금강산 기행시문 비교 연구」, 『동양학』 38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89-112면.

이경수, 「16세기 금강산 기행문의 작자와 저술배경」, 『국문학연구』 4권, 국문학회,

2000, 185-211면.

이종묵, 「조선 전기 문인의 금강산 유람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6권, 한국한시학회, 1998, 21-52면.